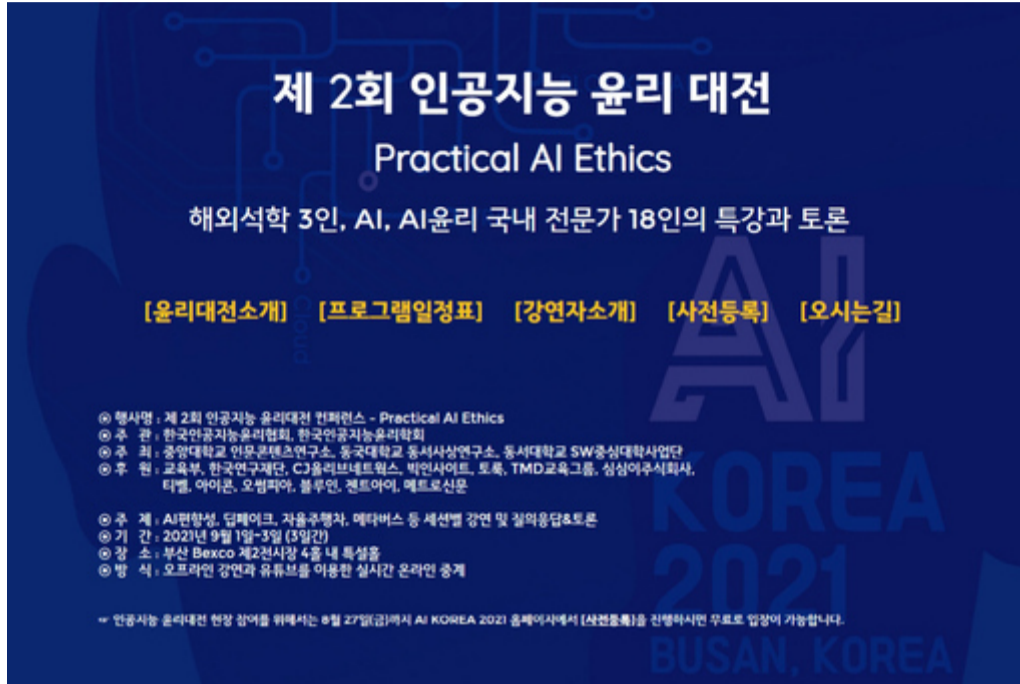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내달 '제2회 인공지능 윤리대전 컨퍼런스' 개최

메트로신문 강준혁 기자 | 2021-08-20 15:32:01



제 2회 인공지능 윤리 대전 안내 포스터.

부산 벡스코에서 인공지능(AI) 윤리를 주제로 '인공지능 윤리대전'이 열린다.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는 AI윤리를 주제로 한 국내 유일한 컨퍼런스인 인공지능 윤리대전이 올해 제 2회째를 맞이하여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부산광역시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벡스코가 주최하는 AI KOREA 2021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KAIEA)와 한국인공지능윤리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동서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가 공동 주최한다.

올해 컨퍼런스 주제는 현재 국내외에서 가장 많은 논란과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 4가지 실제적인 AI 윤리 주제인 AI편향성, 딥페이크,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등 총 4개 세션에서, 각 세션별로 학계, 공공기관, 연구기관, 산업계 전문가 등 총 21명의 강연과 시민들과의 소통시간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킬러로봇 등 AI윤리의 세계적인 석학인 호주 UNSW 토비윌시 교수, 글로벌 AI윤리 정책 전문가인 캐나다 앨버타 대학 조나단 웨퍼 교수, 자율주행차 분야의 석학으로 부상 중인 미국 버클리 대학의 토마스 길버트 박사 등 해외 석학 3인과, 서울교대 변순용 교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정욱 센터장, 심심이주식회사 최정희 대표, CJ올리브네트웍스 손종수 AI코어연구소장, SK텔레콤 송진한 PL, 동국대 심지원 교수, 동서대 최동혁 교수, 중앙대 문규민 연구교수,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한정택 부회장과 신한수 이사가 주요 연사로 나선다.

전창배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은 "최근에 시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고 궁금해 하는 AI윤리 주제인 AI편향성, 딥페이크, 자율주행차, 메타버스를 주제로 구성한 만큼 보다 풍부하고 재밌는 AI 윤리 사례들과 내용들을 많은 시민들이 공유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